

공기업 문어발확장 금지뎀... 민간일자리 20% 더 늘어

파이터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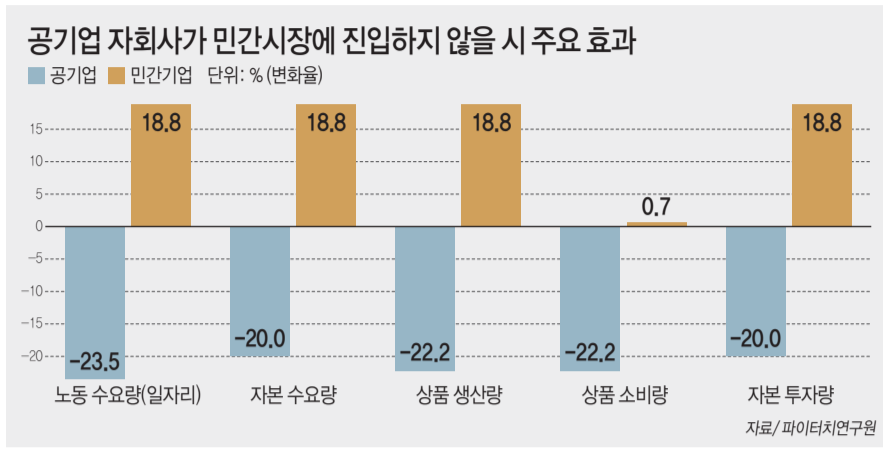
긍정효과 '사회적 복지' 5.4% 증가
"시장진입 실태조사, 민영화 추진,
자회사 설립방지법 등 제정해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일반 기업의 일자리가 약 20%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진입을 차단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는 '사회적 복지'가 5.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본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기업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회사 가운데 민영화 대상을 선별, 단계적으로 민간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4일 펴낸 '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자회사가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 자본 투자량이 모두 18.8%씩 늘어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상품 소비량도 0.7% 증가한다.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나가는 대신 위축됐던 민간기업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효용, 민간기업 이윤, 공기업 및 자회사 이윤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자회사의 철수 또는 진입 차단으로 인해 공기업의 일자리(-23.5%), 자본 수요량(-20%), 상품 생산량(-22.2%), 자본 투자량(-20%)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가 증가하는 것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자회사가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공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공기업의 노동 임금과 상품 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기업의 노동 및 상품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관련 정보가 집약된 온라인 사이트인 알리오, 클린아이와 함께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의 자료를

두루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중앙공기업 모회사 매출은 176조4000억원, 자회사 매출은 44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엔 모회사 매출(22조9000억원)에 비해 자회사 매출은 2000억원으로 미미했다.

자회사를 통한 민간시장 진입과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중앙공기업과 그 자회사들에 대부분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화력 발전이 본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이더블류서비스·코에너지서비스·코웨이포서비스), 경비·경호 서비스(중부발전서비스·코스포서비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캡코에너지솔루션·코셈터미널·한국전력기술), 일반 전기 공사업(한전KPS), 제조업·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경기그린에너지),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상공에너지)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철도 여객 운송업이 주업무인 코레일도 보험 대리·중개업(케이아이비보험중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코레일관광개발),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코레일네트워크),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코레일유통), 철도궤도 전

문 공사업(코레일테크), 철도 여객 운송업(에스알), 철도 화물 운송업(코레일로지스) 등에 진출해 있다.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도 도시철도 운송업이 본업이지만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소사원시운영), 건축물 일반 청소업(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서울메트로환경), 도시철도 운송업(김포골드라인) 등을 하고 있다.

라정주 원장은 "공기업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 마중물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비밀비재하게 진입해왔다"면서 "이같은 공기업의 행위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만큼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을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실태 조사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심사위원회 설립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 선별 ▲민영화 단계적으로 추진 ▲'공기업 자회사 설립 방지법' 제정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엘코퍼레이션, 3D인쇄기 '폼3' 할인판매

3D프린팅 솔루션 기업 폼랩 독점 대리점 엘코퍼레이션이 인기 제품 '폼3'을 100대 한정으로 750만원에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폼3은 3D 인쇄 기술 SLA 방식을 한 단계 개선한 저전력 스테레오리소그래피(LFS) 방식 제품이다. 레이저 스팟 사이즈를 개선해 정밀한 디자인이 필요한 분야와 준산업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폼3B와 동일한 프리미엄 버전이면서도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앞서 엘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 '폼랩 글로벌 로드쇼'를 진행해 폼3를 2주만에 완판한 바 있다.

한편 폼랩은 조만간 폼3B를 출시할



폼3. /엘코퍼레이션

예정이다. 산업용 레진뿐 아니라 치과, 헬스케어 등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내 치과용 레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격은 1000만원대로 예상된다.

/김재용 기자 juk@

내년도 정부연구개발 공청회 온라인 진행

과기부, 코로나19에 비대면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 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이번에는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로 준비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혁신'과 '포용'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 성장 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와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R&D에 따른 핵심역량에 중점 투자하는 등 공공(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부처간, 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해 별도로 심의하고, 협업 이행 수준을 고려해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활동 돌입

상근위원에 오용석·원종현·신왕건
주요 투자기준, 정책·개발 등 논의

국민연금이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앞으로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맡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이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호섭)으로 구성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코웨이, 日 도쿄서 공기청정기 특별展

코웨이는 봄철 공기청정기 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3월2일까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초타야 가덴'에서 공기청정기 특별 전시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초타야 가덴은 일본에서 가전뿐 아니라 도서·가구·인테리어 제품을 함께 판매하며 전시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토털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코웨이는 초타야 가덴 내에 코웨이 공기청정기 특별전을 마련하고 신규 출시 제품인 멀티액션미니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주요 공기청정기를 전시한다. 특히 코웨이 공기청정기 성능 체험존을

별도로 마련해 코웨이만의 강력한 청정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초타야 가덴에서 요리를 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토크 이벤트도 열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물질과 퀘퀘한 냄새를 공기청정기를 이용,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공유한다.

2018년 하반기에 일본 공기청정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 코웨이는 강력한 청정성능과 공간에 잘 어울리는 제품 디자인으로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어린이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멀티액션미



코웨이가 일본 도쿄 초타야 카덴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특별 전시관 전경.

니 공기청정기는 지난 2016년 당시 국내에 선보인 대표 공기청정기인 멀티액션 공기청정기(AP-1516D) 후속 모델이다. 비교적 적은 평형대의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 맞춰 권장전용면적 33㎡로 개발한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